

올해 도내 초중고 26곳에 지능형 과학실 구축비 지원

전북자치도교육청, 15억원 지원...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56개교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교육과정 연계 유연한 과학탐구 등이 기본 방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 26개교에 지능형 과학실 구축비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능형 과학실은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공간이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330개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고, 올해 초등학교 11개교·중학교 8개교·고등학교 7개교에 지능형 과학실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능형 과학실은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 △교육과정과 연계된 유연한 과학탐구 공간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공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과학적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VR과 IoT센서 기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 과학탐구 도구를 학교 환경 및 수업 목적에 맞게

갖추게 된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지능형 과학실은 ON과 연계해 시공간적 제한을 벗어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과학탐구 수업이 가능하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24일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대상교 담당자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이 제24회 교육부장관기 전국 시도교육청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승 무실점으로 우승컵... 2연패 달성 '쾌거'

전북자치도교육청 축구동호회, 교육부장관기 전국대회 우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축구동호회(단장 박성현, 감독 정철)는 지난 2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제24회 교육부장관기 전국 시도교육청 축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시·도교육청 직원 간 정보교류를 통한 교육협력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치러진다.

이에 따르면 전북은 4개 조로 치러진 예선전에서 전남, 충북, 울산, 대전을 차례로 꺾고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는 광주를, 준결승에서는 서울을 각각 1대 0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부산을 1대 0으로 이기며 7

전 전승 무실점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연패와 무실점 우승은 어느 팀도 이루지 못한 결과다.

박성현 단장은 "모든 선수들의 고른 활약과 운동장 밖에서 응원해 준 회원들 덕분에 2년 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며 "회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바른 언어 습관, 개인 가치 높이는 첫 단계'

전북자치도교육청, '따뜻한 말 한마디' 공모전... 내달 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따뜻한 말 한마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나나-우리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 친화적 공동체 문화 형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이다.

공모분야는 이모티콘 1종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맺기를 주제로 친구와 가족,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내용을 이모

티콘과 함께 담아내면 된다.

도내 초·중·고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작품 설명 등을 이메일(dusgm1wn@jbedu.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초등과 중등 각각 16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특히 최우수작품은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 수상작 전체 작품은 창조나래(별관)에 전시해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바른 언어 습관은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첫 단계이며, 학생들의 내적 자질과 윤리적 소양의 기초"라면서 "미래역량과 도덕적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조리실무사 정원 147명 증원

전북자치도교육청, 2013년 이후 11년 만에 대폭 늘려
조리실무사 노동강도 완화, 식생활관 근무 환경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조리실무사 정원을 1,986명에서 2,133명으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조리실무사 증원은 학교 식생활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조리실무사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증원은 오는 9월 이뤄

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리실무사 1명당 평균 급식 인원이 기존 81명에서 7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조리실무사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학교 식생활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지역문화 콘텐츠
글로벌 산업화 추진 포럼

세계한인무역협회, 약주
전북문화관광재단에 기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 박종범)와 함께 지난 19~20일 1박 2일 동안 진행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글로벌 산업화 추진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전주대의 문화연수 프로그램 일정을 마치며 전북특별자치도도의 풍요로운 문명사와 전통문화가 세계적인 문화산업 진흥에 일조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세계의 약주 130점을 전북문화관광재단에 기증했다.

박종범 회장은 "전주대학교가 지역 자원과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고품격 교육문화관광 사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전주대 LINC 3.0 사업단 유경민 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재외동포 사업가들의 아나스포라(anaspora)를 이해하고 이에 감사드린다"며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문화 부흥을 통해 지역과 국가, 재외동포들이 하나가 되고 번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산업화해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월드유타와 함께 전북기업의 해외 진출과 학생들의 글로벌 진출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인권 감수성 증진'

전주대 인권센터, 전라권
네트워킹 성장훈련 교육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최근 '제1회 전라권 네트워킹 성장훈련(슈퍼비전) 교육'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부의 '2024년 대학 내 성평등 근절 및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대학교 교내에서 진행,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고충과 권역별 경력자(슈퍼바이저)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전라권 슈퍼비저는 전주대 인권센터 김미라 연구교수·백민혁 조사상담관, 전남대 인권센터 양주에 전문경력관이 권역별 슈퍼비저로 선정, 사



전 질의에 대한 문답식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50여 명의 전라권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담당자가 참여해 교육 및 소그룹 활동을 통해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슈퍼비저로 참여한 인권센터 김미라 연구교수는 "전주대 인권센터가 신설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의 유경험자로서 대학 실무자에게 작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대학 인권센터 공유의 장이 마련돼 업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슈퍼비저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듣게 돼 담당자로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인권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권역별 대학 인권센터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인권 감수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기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 지원 선정

2027년까지 36억원 국비 지원받아... 연 100여명 양성 목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중점사업단(단장 국경수)은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 맞춤형 양성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연구인력 신규 사업이다. 올해 모두 16개 기관이 응모해 전북대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36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아 전북지역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과 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과 R&D 연계지원 등이 윈스톱으로 이뤄지는 중소기업 R&D 전문인력 양성 프로세스를 구축, 운영한다.

사업단은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0여 명의 연구인

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연구인력들이 최대 4개월 간 기업에서 인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인력들은 인턴 기간 중에 해당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중 40개의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해 프로젝트 당 1,200만 원의 R&D 자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경수 단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체 연구개발 및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단계별, 체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채용의 연계를 포함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대학과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중점사업단은 2023년 10월 열린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수소산업 인력 양성
국립군산대-완주군 '맞손'

국립군산대학교는 완주군과 상호 협력을 통한 수소산업 인력양성 및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최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영식 완주 부군수, 오상혁 완주군 수소산업팀장, 장민석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심중호 화학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해 양 기관의 발전과 수소산업 인력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수소산업 인력양성 사업 참여 통한 협약 기관의 혁신과 발전,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 기술·인력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과 확산에 협력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최근 개관한 전주교육문화회관 '더 특별한 꿈섬' 가상 스포츠실 내부. (사진=전주교육문화회관 제공)

전주교육문화회관, '더 특별한 꿈섬' 개관

상상공작소·가상 스포츠실 등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지난해부터 본관 1층 재구조화사업을 통해 '더 특별한 꿈섬'을 최근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어린이의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공간으로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미로형 서가, △복스텝 열람공간, △그림책 원화갤러리를 조성했으며, 또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상공작소, △가상스포츠실, △미래교육실을 마련했다.

특히, 청소년 전용 공간인 상상공작소에서는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공간으로 똑딱공작소, 코딩공작소, 미래공

작소, 글쓰기공작소, 상상놀이터 등 총 5개 주제로 구성, △나만의 머그컵 제작, △3D프린터 및 3D펜, △스캔&컷, △아두이노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창의적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체험가능한 가상스포츠실에서는 △팝드론, △VR체험, △스마트 농구 등 미래교육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 즐기며 배울 수 있다.

한편 상상공작소와 가상스포츠실은 평일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지역 시니어클럽의 인프라를 활용한 안전지킴이(노인 일자리) 2명이 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기기별 활용법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